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마태 22, 10)

사진 : 조미희 아그리베나(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28주일 · 군인 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25, 6~10ㄱ

화답송 시편 23(22), 1~3ㄱ, 3나ㄴ~4, 5, 6 (©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2.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

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필리피서 4, 12~14, 19~20

복음환호송 에페 1, 17~18 참조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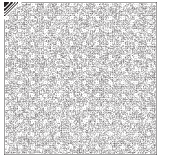
복음 마태오 22, 1~14

영성체송 시편 34(33), 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초대장을 받고서...



교포사목을 했던 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에 한인여성회에서 주최한 자선기금 마련 파티 행사에 초대받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분들의 복장과 머리 손질이 여간 정성스럽지 않았습니 다. 참석한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마치 거룩한 부활 성야 미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분의 결혼식에 가게 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마도 무슨 옷을 입을 까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아는 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에 운동을 나갔다가 결혼식 시간이 다 되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식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 모두들 신경을 꽤나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복장으로 결혼을 축하하러 간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복장도 괜찮고 참석만 하면 된

다는 유혹에 제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에는 참석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를 무시한 저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초대장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장을 받고서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고 생각을 굳히게 되는 선택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 니다. 다시금 초대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기의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임금의 초대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가 버리거나, 그리고 참석을 안 하는 것은 그 초대장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핑계거리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들의 수첩과 스마트폰, 달력 일정표에

빠곡히 적혀있는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 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정들 가운데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삭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인 미사 전에 참여하는 일정이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중요한 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미사를 마치고 삶속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의 준비된 복장과 잔치 뒤의 기쁨을,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군인 주일입니다. 군인 신자들이 소중한 주일미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성 주
프란치스코 신부
삼계성당 주임



그래서 눈물

지금 여기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눈물에 약해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눈물을 보이면 어쩔 줄 모르며 뭐든 눈감아 주는데, 이런 성격을 알고 거짓 눈물로 악용하는 이도 있어 주의를 주었더니 알고 있노라고, 그렇지만 어찌겠느냐고, 본래 눈물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피할 곳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16(월)~17(화)
이성주 신부(삼계성당 주임)
10.18(수)~21(토)
김진수 신부(울산대리구 사회사목담당)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10.17(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광안성당 체칠리아 성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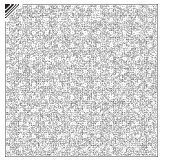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0.20(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부산교구 6지구 청년연합회 <돌보아주소서> 팀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성 지 민 그라시아

‘우수한 성적으로 지방 국립대 졸업, 해외기관 및 국내 공기업 인턴, 토익점수 950이상, 영어회화 및 기초 중국어 가능’ 소위 말하는 스펙이 단단한 친구가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재 친구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1년 계약직, 2년 이상 연장 불가, 야근을 해야 하지만 수당은 못 챙겨 준다.’는 곳 이외는 찾기가 힘든가 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세상 좋아졌지. 해외 배낭여행에 어학연수라니. 이 뭐야 우리 때는 꿈도 못 꿰어. 동생들 뒷바라지해서 학교 보내랴 집안일 하랴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전쟁까지 겪으며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일구어낸 경제적 성장과 풍요 속에서 예전보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는 청년들의 하소연이 엄살과 나약함으로 들리고 한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오늘만 참고 일하면, 이 고통을 견디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거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정년이 보장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알뜰살뜰 조금씩 모아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오늘보다 더 못한 내일’이 올 수 있다는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앞서 말한 친구와 같이 1년 계약직으로, 또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일해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연애,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은 당장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체감실업률 22.5%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초조해하는 청년들과 또 한편으로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함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을 위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쌓여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문제와는 다른 이유로 청년들은 힘듭니다. 그 시절과 지금은 상당히 변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회구조로 인한 문제들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청년으로서 고민스럽습니다. 청년들은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로 늘 불안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취업준비로 본당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교회는 곁에서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본당을 위한 제언(3) - 사람

조직이 성장하고 번창할 때는 보통 조직의 관리와 유지 자체가 그 조직의 목적이 된다.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전체로서의 조직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와 욕구는 조직의 이해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이런 시기에 그 조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조직의 번성함이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떤 조직이든 성장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체기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도 조직 자체를 중시하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조직과 구성원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성장이 주는 성취감이 사라진 후에는 구성원들을 조직 논리로 묶어줄 동력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을 다시 성장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독려하고 또 독려한다. 여기서 다

시 구성원의 소외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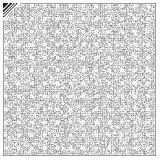
한국사회 전반은 급속한 성장의 몸살을 앓았다. ‘성장 자체와 국가 자체를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풍토 속에서 개별적이고 독특한 각자의 요구와 욕구는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런 시절을 오래 겪었다. 성장이라는 신화와 국가라는 신화가 허물어져 버린 지금에도 여전히 성장과 국가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갈등과 소외를 심하게 겪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겪어내서 우리의 내적 자산으로 미쳐 만들어 내지 못한 갈등과 소외이다. 그래서 ‘나’,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척 소중한 것으로 다가온다.

이런 일련의 구조는 본당과 본당 속의 제 단체 속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처 개별적 요구와 욕구를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요청을 다양한 얼굴로 응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보편적이다.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사회교리학교

'모든 이를 위한 경제정의' 에 초대합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루카 16, 13)

교회의 사회교리를 연구하고 교육해야 할 사명이 정의평화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가 해마다 봄이면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을 열고, 가을이면 **주제·심화강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혼돈스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복음과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토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동안 가톨릭 사회교리와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서한인 ‘모든 이를 위한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for All, 1986)’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번역작업을 해오다, 최근 이동화 신부님(신학원장 겸 신학대학 교수)의 번역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톨릭교회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찰하고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거나 훼손하기도 하고, 가정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련하

는 ‘경제정의’ 주제 강좌는 교회의 사명인 “시대의 징표”(사목현장 4월)를 읽어내고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을 오직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며, 무신론의 확산을 돕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424항)

관심 있는 교우 누구나 환영합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학교(주제/심화강좌)

일 시. 10월 25일~11월 15일 매주 수요일 19:00(4주간)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배움터

문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참가비. 2만 5천원

(사회교리학교 수료생 및 정평위 후원인 : 1만 5천원)

농협 301-0465-9508-21(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주제/모든 이를 위한 경제 정의

날 짜	내 용	강 사
10월 25일	성경의 경제와 정의	강은희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1월 1일	가톨릭 사회교리의 경제와 정의	권순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1월 8일	한국사회와 배제의 경제	이영훈 신부 (노동사목)
11월 15일	경제 민주주의의 그리스도교적 전망	이동화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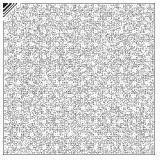


복사도 하고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는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며 따집니다. 무어라 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식은 종종 부모를 ‘우산’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화창한 날에는 심히 불편해하면서도 궂은 날이면 그 밑에 숨어드는 것을 빗댄 얘기이지요. 자매님께서는 사춘기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서 참견하지 말라는 엄포를 날렸던 기억이 없으신가요?^^ 자녀들은 어릴 땐 언제나 부모님이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지만 자라면 어른 말씀을 ‘잔소리’로 취급해 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청소년의 특징이지요. 그럼에도 부모는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며 오직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것도 변할 수 없는 부모님의 팔자이지요. 부모님의 이런 내리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신앙을 전수하

는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 교육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순명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는 ‘결단코’ 없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무엇이든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요라고 생각하며 부모님 속을 꿰뚫어 보는 자식입니다. 머잖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쁜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기쁜 믿음생활을 하도록 애써주십시오. 기도드린 내용을 성실히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백마디 말보다 훨씬 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손 완 호 미카엘

오늘은 제50회 군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 청년 선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 장병들은 전국 곳곳에서 입대한 우리 모두의 형제요 자녀들입니다.

특히 단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은, 젊은 시절 일정 기간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신앙을 접할 다시없는 기회가 되며, 이들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씨앗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그들 자신에게는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령의 은총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군 생활을 귀중하고 은혜로운 시기로 변화시켜 주고,

둘째, 군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병사들이 얻게 되는 믿음과 형제애

가 그들의 폐쇄된 군 생활에 활력을 주어 사명감을 갖춘 성실한 군 생활로 군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자들을 통해 군대의 문화를 복음화하여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들 젊은이들이 제대한 후 지속적인 신앙 생활로 우리 사회에 사랑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군중후원회는 장병들에게 신앙심과 도의심을 심어주어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심을 바탕으로 애국 애족하는 참된 군인이 되도록 이끄는 군중 사제의 가톨릭 전교 활동과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평신도사도직 단체로서 모금사업과 군중 후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14일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부산교구는 다음 해인 1971년 6월

10일 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군중사제 100명 중 부산교구 사제 8명이 전후방 각지에서 군 사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선교 활동 지원을 하여 매년 20대 청년 영세자의 85% 이상인 3만여 명이 군중교구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교육 부대지원, 영세지원, 성당 및 사제관 신·개축 및 보수, 전례 용품 및 비품, 차량 구입비 지원, 도서지원, 부활·성탄 위문품, 군부대 위문, 종교 행사지원 등으로 군중신부를 통한 군 선교와 군 복음화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많은 은인들과, 소속 본당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후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젊은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인 군 장병들을 위해 군중후원회 새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구 군중후원회 회장



“군(軍) 복음화, 세 열정으로”

◆ 후원회 가족과

군 복무 중인 장병, 군중 사제를 위한 미사

부산 : 매월 4번째 목요일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 매월 2번째 금요일 10:00 옥동성당

◆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 성명(본당,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자세히), 제대일

활동 :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2017년 ‘제50회 군인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담화문 바로보기

예신 월모임

· 10.15(일) 13:30 · 신학대학
예신 수첩 지참 / 문의 : 629-8760(성소국)

대리구장과 함께 걷는 양업길 순례

· 10.28(토) 09:30~16:30(시작미사: 연양성당 10:00)
· 양업길(연양성당~김영제묘)
대상: 울산대리구 내 분당 신자들
준비물: 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개인 점심 도시락(반드시 지참)
신청: 참가하실 분은 분당 사무실로 문의

신학생 부모 피정

· 10.29(일) 10:00 · 교구청 / 회비: 1만원
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필기도구
신청: 10.20(금)까지 팩스(629-8764)
문의: 629-8760(성소국)

본 당

수정성당 서공석 신부 특강

· 10.16(월)부터 매주 월요일 10:30~11:30
· 수정성당 / 주제: 하느님
교재비: 1만원 / 문의: 010-3181-8816

삼계성당 마리아 영성피정

· 10.19(목) 13:00~16:30 · 삼계성당
내용: 성체현시, 강의, 미사, 안수
강사: 강요셉 신부 / 문의: (055)331-2963

온천성당 사무장 구함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분당신부 추천서
PC(한글, 엑셀) 가능자, 운전(1종 보통)
문의: 552-0355, 556-0356

해운대성당 사무원 구함

PC(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 문의: 746-5881
제출서류: 분당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10.16(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박성태 신부 / 문의: 464-3909

오순절평화희망을 후원회 미사

부산: 10.16(월)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10.16(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주례: 이주홍 신부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부산] 10.16(월)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부산의 적폐청산과 엘시티 건설비리
강사: 윤일성 교수(부산대)
문의: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강의와 미사

해양사목 성지순례 및 월미사

· 10.16(월) · 거제 윤봉문 요셉 성지
주례: 이규태 신부 / 문의: 464-2707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10.17(화) 14:00 · 부곡동 사회사목국 4층 강당
주례: 이상현 신부 / 문의: 517-0613, 010-3660-2636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10.17(화) 14:00 / 지도: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010-8879-2376(회장)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0.19(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전국 주요성지 해설(새남터)
문의: 515-0030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10.20(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010-9312-4228(회장)
*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파프야누기나 한국외방선교회 픽업트럭
구입 비용 3100만원 지원
-8월: 브라질 싸우다코 성분도수녀회 미혼모의
집 승합차 구입 비용 3000만원 지원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0.21(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전례꽃꽂이연구회 작품발표회

· 10.17(화)~19(목)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010-4554-1173, 010-5064-6512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 10.20(금) 22:30
강사: 오복희 자매(서울대교구)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0.16(월) 19:30 전포성당
· 10.1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묵주기도 성일 수요1일 무료피정
· 10.18(수), 25(수) 11:00~16:00 / 점심 제공
강사: 김규한 신부 / 버스노선표 참조
- 교구 성령목장회
제434차: 10.27(금) 19:00~29(일) 17:30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회비: 10만원, 미리 입금하셔야 정식 접수됩니다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0.19(목) / 강사: 이광우 신부
- 100단 묵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10.16(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가톨릭센터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기념 사진전 <일어나 가자!>

· 10.28(토)~11.6(월) · 대청갤러리(가톨릭센터 내)
전시 개막 및 초대: 10.28(토) 15:00
문의: 462-1870 / 주최: 천주교평양교구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462-1870(행정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화장단 회의

· 10.19(목) 11:00 · 망미성당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부산시니어카리따스합창단 정기연주회

· 11.13(월) 19:30 · 대연성당 ※무료초대
지도: 오창일 신부 / 지휘: 김현성
문의: 010-3851-2210(단장 김창순)

소화영재활원 생활재활교사 및 조리원 구함

자격: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조리사) 소지자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 참조(www.sohwa.or.kr)
마감: 10.25(수) / 문의: 644-1729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78. 10. 19. 김경우(알렉시오) 신부님

자연 안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밀양 감물생태학습관으로 '가을소풍'을 떠나요!

자연을 벗삼아 나누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생활성을 좋아하는 청년감을 가진 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0월 21일(토)~22일(일) ▶ 참가비: 4만원 ▶ 신청 및 문의: 010-2890-0269

▶ 이야기: 김준한 신부, 김인한 신부 ▶ 노래/음악: J-FAM, 최현숙, 김시연, 최준익, 강훈, 김수연, 심정운

제25회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정기전

보시니
종터라

10월 20일(금)~24일(화)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개전식: 10.20(금) 18:30
문의: 010-3590-1043 / 회장: 오연근

(주) 씨피여행사

1. 1/2 이스라엘 이태리 11일 455만원
2. 4/15 스페인도보100순례 13일 325만원
3. 4/23 스페인 일주 루르드 13일 405만원
4. 4/23 서유럽 성지순례 13일 KE 460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 출발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센텀시티역 11, 13번 출구
임페리얼타워 15층
754-9975~6

나가사키 성지순례
대마도 · 일본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프란치스코)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 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개혁신질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경찰청 지정 전문화원강사 책임 지도
도로연수

전문강사: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 관 현(시몬) 최 상 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 88, 100, 110, 등
MK80-미스타30M 펌42M엔드 1.7톤작업
MK100-미스타35M 펌52M엔드 1.6톤작업
MK110-미스타35M 펌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삼진커튼

수입커튼, 완제품커튼,
우드브라이트, 콤비브라이트
이 영 복(요셉) · 김 미 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 · 어깨통증(오십견), 손 · 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

6 · 연중 제28주일 · 군인 주일

♣ 20일: 마르타, 막시모, 바르사바, 베르틸라 보스카르딘, 사울라, 신돌포, 아델리나,
아르레미오, 아카, 안드레아, 이레네, 카프라시오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10.16(월) 10:00 · 오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예수고난회 은인 1일 피정

· 10.16(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하가르야, 너 어디로 가느냐(창세 16, 1~16)
강사 : 서현승 신부
문의 : (02)924-8627, 010-3579-7560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10.20(금) 11:00 · 남천성당 대성전
주례 : 이흥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10.20(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강사 : 김학준 신부 / 문의 : 010-3245-7900

파티마 성모발현 100주년 기념 피정

· 10.21(토) 10:00~16:00 ※ 파티마 영화 상영
· 마리아 피정 센터(동향성당 옆) / 문의 : 634-4845, 010-9620-4820(부산 마리아학교)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숨·심 피정>

내용 : 몸·마음·영혼의 숨 피정
· 10.21(토) 16:00~22(일) 16:00,
10.27(금) 16:00~28(토) 16:00
· 성심영성센터 / 문의 : 581-3114

에니어그램과 마음여행

· 10.28(토) 10:00~17: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자아발견 여행 - 성격을 넘어 본질로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10.29(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10.25(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르보야즈보칼레앙상블 바로크 음악의 향연

M. Corette(1707~1795) Laudate dominum(한국초연)
지휘 : 이성훈, 피아노 : 권선경, 오르간 : 이효진
· 10.21(토) 19: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초대 / 문자 예약 : 010-5256-8336

**제31회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마리아수녀회 자선대바자회**

· 10.28(토) 09:00~20:00, 29(일) 09:00~18:00
· 마리아수녀회 대강당 / 문의 : 250-5406~10

평화장터 길가다마켓 오픈

· 11.11(토) 14:00~20:00 · 대연성당 주차장
판매자 모집(벼룩시장, 수공예품, 먹거리 등)
문의 : 010-6580-1663 *기부물품도 받습니다.

노인복지주택 환돌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입주 신청 중(기준 17, 25, 34평형)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 의료, 건강서비스 및 취미활동 지원
매일 10:00~17:00 전화, 방문 상담 가능(휴무일 없음)
문의 : 758-6231, 010-5574-6231

아순타의집 신규이용자 모집

모집 : 1명 / 문의 : 010-6636-3503
대상 : 신변처리 가능한 남성(지적, 발달장애인)
낮 시간 근로, 주간보호,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는 자

한티순교성지 피정

[말씀피정] 주제 : 말씀을 통한 영적 충만함
· 10.28(토) 16:00~29(일) 13:00
강사 : 배형진 신부(말씀의 선교수도회)
문의 : (054)975-5151
[달빛순례] 주제 : 10월 한티달빛순례
· 10.28(토) 16:00~20:30 / 1부 : 스텝 투어,
2부 : 숲속 음악회, 3부 : 청사초롱 달빛 야행
참가비 : 5천원(신작순 마감)
문의 : (054)979-6503(한티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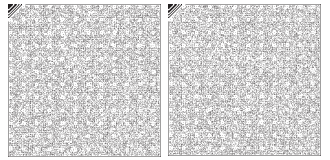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11.18(토) 11:00~19(일) 16:00
· 음성꽃동네사랑의 영성원 / 회비 : 5만원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문의 : 010-5490-5345 / 어린이 동반금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신·구약 성서 통독피정

· 12.2(토) 15:00~10(일)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회비 : 45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3340-2291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의료봉사수도회	10.21(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10.22(일) 14:00	수원 본원	010-8833-810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10.20(금) 18:00~22(일) 15:00 / 무료 숙박
문의(010-3798-5418) : 부산역(06:00)-서면우체
국 12번 출구(06:10)-시청 건너 4번 출구(06:15)-
동래 전철 3번 출구(06:40)-김해시청 건너(07:00)

제151차 성직자, 수도자 성령묵상회

· 11.13(월) 15:30~17(금) 12:00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043)879-8500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회비 : 1인실 29만원, 2인실 25만원
입금 : 우리은행 1002-157-313570 김영철
대표담당 : 김영철 신부, 회장 : 윤영수
문의 : (02)777-3211, nccsa@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사협의회)

제2차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피정

· 12.9(토)~10(일) · 의왕시 아론의 집
주제 : 건강해지고 싶으냐?(요한 5, 6)
지도 :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회장
문의 : 010-5333-5583, 010-9727-2203
주최 : 미국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하찬사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2018.1.19~21, 3.16~18, 4.20~22, 5.18~20,
6.22~24, 9.14~16, 10.19~21, 11.16~18, 12.14~16
금 14:00~일 16:00 / 피정비 : 1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 : 11.7(화)~21(화)
문의 : (054)851-3021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018.4.23(월)~5.5(토) · 서유령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
2016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3개부문 선정!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부 산 성 모 병 원

제12회 알레르기 건강강좌

11.1(수) 13:30 부산성모병원 4층 베네딕도 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검사 무료
문의 : 933-7988(소아청소년과),
933-7242(호흡기내과), 933-7214(이비인후과)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Door to Door 강력추천!!!
일시: 10/23(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8관C&C)
내용 : 뇌성마비의 장애를 딛고 판매왕으로 등극한 빌 포터의 감동실화
18:00 후일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아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발바나) 010-3862-6834

뉴욕스마일
교정전문치과
박형 정(마리아)
ABO공인, 미국교정전문외
비수술 주걱턱 | 안면비대칭
킬본 돌출입 | 어린이 주걱턱
702-6677

대동병원 무료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동래 전철역 옆 554-1233
www.ddh.co.kr

해충 방역 소득
약취완전제거
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 바이빅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SM수맥흠침대
거실 소파, 공장 직영
창업 26주년 행사 중!
1588-5335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공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010-8108-2110
상공회의소 옆 이샘병원 3층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클라라) *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